

성도의 벗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목 차

예언자의 말씀

회원 개개인의 간증 1

선교부장 메시지

인간의 지혜..... 5

지방부장 메시지

무엇을 생각하며 행동할 것인가..... 8

당신의 의문

해답자 죠셉 필딩 스미스.....12

테케이 대관장 91회 탄신일을 마지하다.....19

존슨 대통령 부인 테케이 대관장을 방문하다.....20

하계 한국 지방대회 성황리에 마치다.....23

21세 미만 아픈신권 대회를 돌이켜 보며.....24

지부 자랑

서부지부 소개.....34

상향회 소식.....42

- 주눅의 말씀 -

회원개개인 의 간증.

대교장 데이비드. 오. 맥케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굉장한 활동을 하고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궁금해 합니다.

이 비결은 복음이 참되다는 굳건한 간증을 충실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야말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계시는 신권시대에 수제자였던 배드로에게 주신 간증과 같은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은 간증이 갑자기 주어지지 않더라도 나답해서 안됩니다. 간증은 갑자기 배드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당혹의 예에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구세주가 5000 사람에게 떡을 주시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가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들어왔습니다. 그 때 주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교묘한 말씀으로 가르치셨는데 그 가운데서 군중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한 6:26) 군중들은 주 예수가 떡 다섯 조각과 물고기 두마리로서 5000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으나 그것보다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주 예수는 생명의 떡에 관한 저 유명한 설교를 하셨으나 그 상징하고 있는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군중들은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까지 예수를

따라왔던 제자들도 예수를 떠나 다시 그와함께 다니지 아니 하였읍니다. 마침내는 12사도들만이 남았읍니다. 거기서 주님은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하셨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계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요한 6:67-69)

나는 "믿는다"는 말씀과 "분명히 알았나이다"는 말씀을 잘 생각해 봤읍니다. 그와같이 베드로는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간증 또한 강하고 결정적인 간증이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을 받아드려 주시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으나 그 때 베드로는 "당신은 행복하다"는 말을 받지 ~~않~~고 있었던 것은 확실할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다리고 "가버나움"에 가까이 있는 산에 들어갔읍니다. 예수와 제자들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답이 있었던 것은 이 때 었읍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는 그들에게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태 16:13-18)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인 영감은 그 위에 간증이

세워지는 바위로서 성령이 그 간증을 사람의 마음에 지닐 수 있도록 율법에 따라 깨끗한 생활을 보내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영감을 얻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간증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든 원칙에 따라서 여러가지의 의식을 지키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영" 과 "성령" 과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성실한 사람들에게 한 사람 남김없이(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나집니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성령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의 아들이로서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아는 은사를 얻는다. 또한 다른 사람은 그들의 말을 믿고 충실하면 영원의 생명을 받는 은사를 얻는다(교리와 성약 46:13-1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 하나의 의무를 다할 때에 언제건 간증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을 가트쳐서 한층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알고 복음의 원칙에 따를 때에 그들은 한층 강한 남성, 한층 성실한 여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이와같은 지식이 그들에게 주어지므로 그들은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에 한층 선하고 성실한 남편이 되며 성실하고 훌륭한 부인이 되며 또한 자녀들이 되어 모든 점에서 이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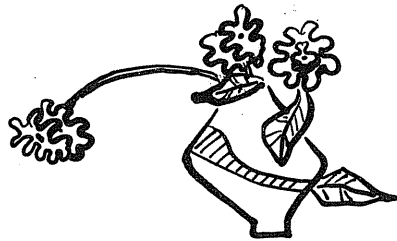
그들은 복음에 따를 때에 인간들 사이에 참된 형제애와 우정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율법과 여러가지의 식에 따르므로서 한층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율법과 여러가지 의식에 따르므로서 한층 선량한 시민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고

그들의 직업에 종교를 실천할 때에 복음이 참되다고 하는 것이 그 생활 가운데 증명되도록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참되다고 하는 간증은 이 혼란과 분쟁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의 "달"입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질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율법과를 안다는 것은 즉 안정이며 만족이며 편안이며 그것에 의해서 사랑이 충만한 마음이 이웃으로 미쳐서 같은 축복, 같은 특권을 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용과 친절과를 낳을 것입니다. 서로 자비와 인애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형제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며 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복음의 목적과 의의를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간들 사이에 있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라 는 영원한 진리에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을 굳건히 하여 일어서지 않으려는지요. 또한 우리들은 이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랑과 친절의 정신을 띠고 우리들의 이웃과 교제하지 않으려는지요!



"인간의 지혜"

선교부장 게일 이 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의 많은 회원들은 복음에 대한 신앙과 인간의 지혜로 번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성실하게 헌신하는 회원이 되고 복음의 간증을 가질 것을 고백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의 소위 식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예언자나 성경에 나타난 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드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의 사법은 인간들이 하는 일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지혜는 한정된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세와 조셉 스미스가 세상적인 지혜를 받아드릴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지혜를 받아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까지도 거짓 신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 실제와 상상의 사물에 따라서 조각된 신,



육신과 금과 은으로 된 신, 이러한 신들은 거짓된 신들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도 사람들은 거짓된 신 즉 많은 이론적인 것을 첨부한 신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었으며 이해할 수 없는 신이었으며 세속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에 따라서 주어진 마음의 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세속적 교리의 영향을 저지하는데 모세나 조셉 스미스가 하였듯이 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실지로 모세나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므로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의 여부에 대한 의심과 혼란을 없애주셨다는 사실을 남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말씀을 확인하는 바이지만 인간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과 같이 단지 영적인 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고 그것은 실제의 살과 뼈를 가진 육체적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유일한 바라심은 모든 인간들이 하늘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의 참된 가르침과 교리는 개인적 견해, 편견적인 해석의 결과인 곡해나 변질로부터 약하게 되지 않아야 하며 또 우리는 그런 틈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회원으로서 우리의 의무는 회복된 잔리를 가르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진리일찌라도 모르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학위를 가졌을지라도 또 아주 깊은 정도까지 연구가 미쳤을지라도 교리 면에 있어서 권위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참된 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권위자로 받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뛰어난 교육자로서 또한 12사도회의 한

분으로서 오랜 동안 봉사했던 알버트. 부러운 장노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으며 의심할바 없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준 바 교훈은 역시 명확한 것입니다. 만일 이 현명하고 진실한 분들의 의견이 그들의 친밀한 매일의 교류와 관계있는 일상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누군들 그렇게 고민하고 어리둥절하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세상적인 일에 대해서 불행히도 실패하였다면 그들은 영적인 세계인 비물질적인 만질 수 없는 영역에 있어서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공공연히 잘못에 속해있는 파당적 환단에 의하여 흔들리고 파괴된 종교위에 기초적 가르침이 세워진 사람들에게 신앙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의 오늘의 결론은 내일의 지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들은 많은 마음의 번민에서 해방될 수 있으며 세계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아도 좋을 것입니다.

감동하기 쉽고 쉽게 믿고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의 개인적 편견과 무신론을 주장하며 냉소로서 그의 지위에 대한 명성과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좀더 넓고 깊은 경험을 가진 교사로서는 비열하고 가치없는 점이 될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교사는 나쁜 교사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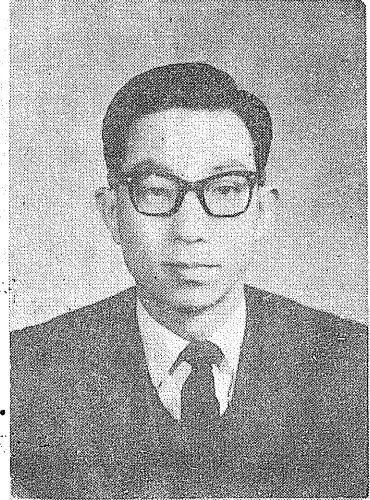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확실히 구별하기 위해서 교회의 회원 여러분은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게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겸허한 기도입니다.

-지방부장 message-

“무엇을 생覺하여 行動할 것인가”

지방부장 이호남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와 같이 호흡하며 생활을 하고 있으나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못합니다. 이제 진실한 교회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형제와 자매로서 대할 수 있는 저는 한없는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우리들은 매일 생활에서 경험하고 실망, 슬픔, 괴로움, 등을 직면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기도들을 드리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일성도는 결코 고독하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움속에서 생활하는 성도는 아직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실한 예수님의 복음안에서의 생활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자기를 저주하며 오늘날과 같은 생존경쟁속에서 삶을 계속하는 것을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우리들이 가진 진리의 지식을 활용하여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하여 희망과 삶에 욕망이 충만한 신앙인의 생활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일찌기 세상에 알려진 한 희랍의 철인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첫째의 축복이며 이 지구상에서 삶에 대

한 경험을 얻는 것이 그 둘째의 축복이며 신을 아버지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 그 세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철인의 말씀과 같이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을 구별 선택하며 생존할 수 있는 것이 교리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첫째 되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리들의 영원한 아버지로 삼을 수 있다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축복은 받았으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영광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유의지라는 특권을 통한 결과가 정해 줄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며 무엇을 획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심중히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축복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의 생각은 시온건설이라는 성스러운 목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시온" 건설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주님의 복음 안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복음의 지식에 관하여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완전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폄하하며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드리지 못한 형제들은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화학을 연구해 보면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이라 함은 병균을 퍼뜨릴지도 모르는 미생물로부터 멀리하고 있는 무해한 것이지만 역시 죽은 많은 미생물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학적으로는 더럽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화학적으로 깨끗한 물이란 증류수 즉 H_2O 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은 화학적인 물질과 인격의 비교를 검토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반성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면에서는 청결합니다. 정직합니다. 친우나 회원들의 눈으로 볼때는 성실하며 의롭고 정직한 인격자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만일 이러한 개인을 영적인 헌미경으로 검사한다면 우리들은 실망케 하고 질투, 욕심, 교만 등으로 가득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위생적으로 깨끗한 물 속에 많은 미생물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토마서 1장16절에 있는 바울의 말씀과 같이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말며 이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자기가 물론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실토하기를 두려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회원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우리의 최상의 목표이며 의무인 시온 건설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폭풍우 속에서 행방을 잃은 배의 의무(나침판)이나 등대의 직분을 다 할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이 결합된 신앙인이 되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범한 생활을 하기는 쉬우나 그들과 다른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고립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복음의 진리를 토대로하여 신념을 갖고 우리와 같이 선과 의에 굽주린 미지의 형제자매들에게 사랑으로써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성도의 생활은 마치 과부가 조그마한 금을 얻기 위하여 오랜 시일을 두고 땅을 파는 태도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형제중에 어둠속에서 행방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새 희망과 생명을 주며 우리와

함께 시온 건설 대열에 참가하도록 부단한 노력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들의 세계로 즉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계로 그들을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거일동은 "Recording Angels" 즉 기록의 천사에게 의하여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마지막날 예수님의 앞에서 "주여 당신께서 하라신 일을 다 했나이다" 하며 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시온 건설에 일꾼이 되시기를 빕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당신 의 의문

해답자: 조셉 윌딩 스미스

12사도 정원회 회장

— 질문 —

복음교리 반에서 죽은자를 위한 침례문제를 토론하다가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대리사업을 행합니까? 질문 하였더니 한 회원이 대답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지요. 라 했습니다. 그때 나는 교리와 성약 85장 3-5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합당하게 봉납함으로써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등록함은 하나님의 뜻과 계명에 어긋나느니라 이 율법은 보응을 내리고 불태우는 그 날에 대비하여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십일조를 바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니라."

이 사람들의 족보도 기록하지 말지니 교회의 역사나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을만한 어떠한 곳에도 이를 기재하여서는 안되느니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이나 그 부친이나 자녀의 이름도 결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지 말라"

또 우리들은 에스라 2장 62절 63절을 읽어 보니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은 신전에서 제외되었더니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도 신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침례나 엔다우먼트 같은 때림 사업은 복음의 축복을 받을 기회없이 돌아가신 이들을 위한 의식이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 해답 —

주님께서 선지자 죠셉 스미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영광스러운 의식이 계시되었을 당시 선지자께서는 영국에 선교사업을 시작하려고 건너간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세이머어 부른센 형제의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이 교리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 때로부터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것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도들은 돌아가신 자기들의 친척이 영육에 있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통하여 듣고 영으로서 복음을 받아드릴 특권이 부여된다면 복음을 받아 드리라 믿고 저들을 위하여 칙례를 받아 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고서도 이 교리의 타당성과 일관성을 의심없이 아실 것입니다. 이 교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해 왔던 것 보다는 더욱 넓은 범위의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이 의식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특수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동시에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모든 교훈을 전하기를 즐겨 하옵나만 여백이 없습니다(문서교회사 231페이지)

또 선지자 죠셉 스미스는 1844년 5월 12일 주일에 하신 강론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칙례를 받아 왕국에 속하게된 사람은 모두 돌아가신 이들을 위하여 칙례를 받아 줄 권리가 있습니다.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대리자로 행사하실 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법을 순종하자 마자 주님께서는 돌아가신 분들을 자유롭게 주십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돌아가신 자기 친척을 위해 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주어진 복음의 의식은 이같이 대리자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와 친분이 두터웠던 사람들을 위하여 칙례

받을 수 있습니다.....아담 안에서 죽은 것같이
서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니 모
든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부활을 가져오셨으니 만인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
다(통6, 365-366페이지)

구세주께서 침례가 구원에 있어서 불가결의 것이라 가르쳐
주신 이래로 모든 성인 — 즉 팔세 이상의 사람 — 은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신성한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침례는 이해력이 없는 불완전한 자(유아나 정
신 박약자 역자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모든 어린아이
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리
와 성약 29장 46-50절, 도모나이 8장 19-22을 읽으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천세에서 받을 수 없었다면 대신해서 받아 주
는 의식이 태초부터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복음은 대리 구
원들 가르쳐 주고 있다. 만일 예수 우리 주께서 자기 피를 흘
려 희생의 제물로 헌납되지 아니하셨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이로써 모든 무덤을 열으셨는데 인
류뿐만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된
모든 생물까지도 부활하게 된다.

애물레이 조렘인에게 준 권고(알마 32:32-34)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은 자에 대해서는 권고가 없는 것이다. 이 조
렘인은 교회에서 배교하여 나간 자들이며 완전히 영적 암흑에
놓여 있던 자들이다. 그러므로 저들이 범법하게 되는데에는 아무
런 구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품위없는 옷차림에 대한 정문 일침"

무례한 옷차림에 관하여 언급된 12사도회 회장 조셉 훔딩 스미스 장노의 서한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인 다음 글들이 8월 8일자 처치 뉴스에 공개되었다.

친애하는 형제에게:

현대의 복장에 관하여 상호부조회 대회 석상에서 내가 이야기한 내용에 만족의 뜻을 보여준 형제님의 서신에 감사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지난 4월에 있었던 교회의 연차대회에서도 역시 나의 이야기 주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듯이, 여성들의 세계와, 정숙한 태도의 부족을 부끄러워함도 없이 단순히 모방만을 일삼는 교회회원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일정도 교회의 대학에 다니던 나의 젊은 시절을 돌이켜 보면 그 때에 우리는 일종의 크립을 형성한 젊은 남녀들의 한 그룹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정기적인 모임을 여러 가정에서 번갈아 가며 가졌습니다. 그 때에 대학에 다니던 모든 여자들은 어깨를 가리우고 발끝까지 느려지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들이 알맞게 어울리는 복장을 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몸가짐을 정숙하게 지니고 있었다고 생각되었던 일들입니다. 언젠가 다른 그룹의 여자들이, 여름에 우리와 함께 야외에서 모임을 가졌을 때, 무릎위에 닿는 옷을 입어서 아주 찢찢매매 고심하던 것을 본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룹의 여학생들은 모두가

정숙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스테이크 대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 앞줄에 앉아있는 부인들이나 젊은 여성들을 보게 되는데, 단상에서 내려다 보면 무릎위가 들어난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자매들이 자기들의 무릎을 덮으려고 애쓰면서 자기의 옷을 자꾸만 끌어내리고 있는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원래 옷이 짧아서 더 내려오지 않는데 그들은 자꾸만 그렇게 합니다. 이 밖에도 그와 비슷한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고만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몇년전에 어느형제는 현대의 경향에 심각한 관심을 표하여 말하기를, "정숙은 땅에 떨어졌다"고 표명했습니다.

"비단 짧은 여성들 뿐만이 아니라 여성 지도자들인 우리의 자매들 중에도 이처럼 올바르게 옷입는 예의를 그리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실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의 구실은 더 좋은 옷이나, 좀더 길다란 옷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입는다고 합니다. 내가 저주를 해도 곤란할까요? 더우기 상당수의 자매들이 이미 허리위를 감추지 않고 있고, 소매 없는 옷을 입거나, 깃다가 말고 입은 듯한 이름도 없는 흥취한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도 자매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 나는 정구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겨우 허리만을 가리는 정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외에도 나는 더 많은 실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릇된 버릇에 대한 나의 격분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그릇된 버릇이 조속히 고쳐져야 한다는 뚜렷한 이유로서, 품위없는 옷차림은 부도덕이나, 부정이나, 순결에 관

한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행위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내가 분명하게 말해두고 싶은 것은 지난 몇해 동안에 성적 불순행위의 건수가 대단히 증가되었다는 것이며 그러기 때문에 나는 어느 형제의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강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숙은 땅에 떨어졌다" 확실히 부도덕한 경향은 아주 만연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은 분명히 옳바른 길을 걷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회의 어느 지위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자매들은 정숙한 태도와 품위있는 옷차림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시대를 예상했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는 "시온의 딸들"과 그들을 괴롭히는 불순과 주님의 진노하심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현대의 악습과 획폐된 경향을 바로잡고, 우리로 하여금 순결, 정숙, 그리고 주님앞에 겸손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줄 어떤 조치가 마련되는 이투어져야 할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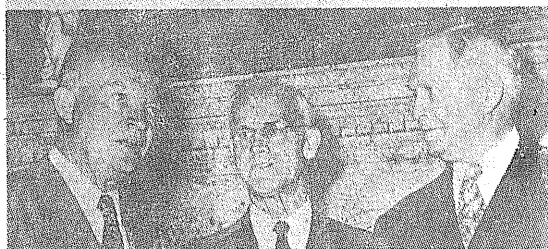


당신의 형제

조셉 필딩 스미스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 메케이 대관장을
방문했을 때 그의
사무실에서 취합 포
즈.



위로부터 하리 에스.
투트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



대관장의 단란한
가정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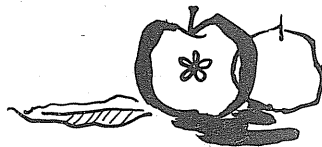


멕케이 대관장 제 91회 탄신일을

마지하다

9월 8일로서 91회 탄신을 마지한 데이비드 오. 멕케이 대관장은 1951년 고 조지. 알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뒤를 이어 제 9대 대관장으로 성임받았었다.

그 분은 1873년 9월 8일 유타주 헌쓰 빌에서 탄생하셨으며 1897년에 유타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같은 해 70인 장노에 성임받고 영국에 선교사로 부름받아 성공적으로 그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1901년 1월 2일 20세기에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결혼한 첫 부부로서 "존. 헨리. 스미스" 사도에 의해 "애마. 레이 리그스" 자매와 결혼하셨습니다. 1906년 4월 9일에 "쇼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12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성임되고 같은 해 교회 교육국 회원으로서 봉사하셨습니다. 1918년 저서 "고대의 사도" 출판, 1918-1934 데저렛 주일학교 연합회 총감독으로 임명 받음. 다시 1922년 유럽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아 유럽 선교부를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봉사하다. 1934년 10월 6일 대관장회 제 2보좌에 부름받고 다시 1950년 9월 30일 12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하여 100,000마일 이상의 여행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언자의 탄신일을 마지하여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우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도록 굳건한 신앙생활을 할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기로 합시다.





Lady Bird Johnson signs diary of President David O. McKay on day of visit held by Miss Clair Middlemiss, the Church Leader's secretary.

"존슨 대통령 부인 맥케이 대관장을 방문하다"

이 기사는 8월 22일자 처치 뉴스의 기사를 전재한 것입니다.

버드 존슨 여사는 지난 주 병원에서 퇴원한지 며칠 되지 않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을 방문하였다. 이것

은 존슨 대통령부인의 서부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의 하나였다.

존슨 대통령 부인은 백악관의 정중한 인사를 전했다. 그녀는 맥케이 대관장이 와병후 대단히 건강이 좋은 것을 알았다.

프랭크 이. 모스 유타주 출신 상원의원과 존슨 여사는 유타호텔로 맥케이 대관장을 방문하였는데 몰려온 많은 신문 및 통신기자들은 맥케이 대관장 거실 가까이 가지 않도록 부탁 받았으며 모스의원과 잠간동안의 접견을 통해서 존슨 부인의 방문 실황을 알았다.

맥케이 대관장은 존슨 부인을 만나뵐 수 있어서 기쁘며 존슨 대통령과 회담하기 위해서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만나본 후에 다시 만나서 기쁘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대관장은 존슨 여사가 솔트레이크 시와 유타주의 관광여행에 많은 즐거움을 갖기를 바란다고 존슨 대통령 부인에게 말했다.

존슨 대통령이 메케이 대관장에게 전하는 "예물"중에는 윌포드 우드럴 제 4대 대관장이 1864년 직접 서명하였던 문서철이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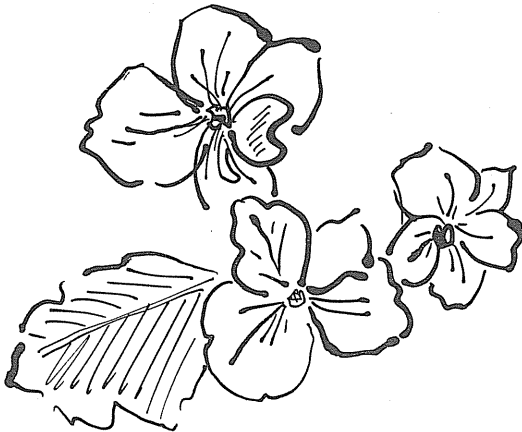
또한 존슨 부인은 존슨 대통령이 집필한 "활동을 위한 때"라는 책을 증정하였는데 이 책 걸장에는 존슨대통령이 메케이 대관장에게 보내는 뗏세지로서

"우리 나라의 발전에 위대한 공헌을 하신 귀 교회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라고 쓰여있었다.

또 예물 중에는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이 태버나클 합창단과 같이 촬영한 색 사진도 들어 있었다.

존슨 부인은 또한 1846년 8월 9일 브리감 영 대관장이 재임스.폴브 대통령에게 서부로 여행하는 500명의 물몬이주민을 군인들이 호위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의 사본도 가져왔다.

모스 상원의원은 메케이 대관장은 아주 빠르게 기력이 회복된것 같이 보였으며 그는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를 회상하고 그 때를 즐겁게 생각하며 존슨여사가 샬트레이크시와 유타주의 남은 관광여행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구모라 언덕의 야외극 대성황"

지난 7월 28일 부터 8월 1일 까지 5일 동안 구모라 언덕 근처에서 야외극을 개최하였다. 이 때 무려 182,000여명의 관람객이 모인 가운데 대성황을 이루었다하며 연출은 부리감 영 대학교 연극과 주임 교수 해롤드.아이. 햄슨박사가 맡아 보았다.

* "푸토보. 유타 소식"

브리감 영 대학교의 1964년도 졸업반 학생 1,523명중 3분의 1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복무했던 사람들이었다. 통계를 보면 523명의 남학생이 선교사였고 15사람의 여학생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세계 각곳에서 선교사로 복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니콜스"장노 결혼하다.

한국 선교부에서 전도사업을 마치고 귀국한 빨강머리의 미첼.애린. 니콜스 형제는 솔트레이크 신전에서 10월 9일 재이 리내. 부라운 자매와 결혼한다는 청첩장을 한국의 모든 회원들에게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마음 속으로 축하의 뜻을 보냅니다.

* "모트몬의 딸 영어 웅변대회에 2등"

청운지부의 유복순 자매는 지난달 교내 영어 웅변대회에서 2등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다.

"하계 한국 지방대회 성황리에 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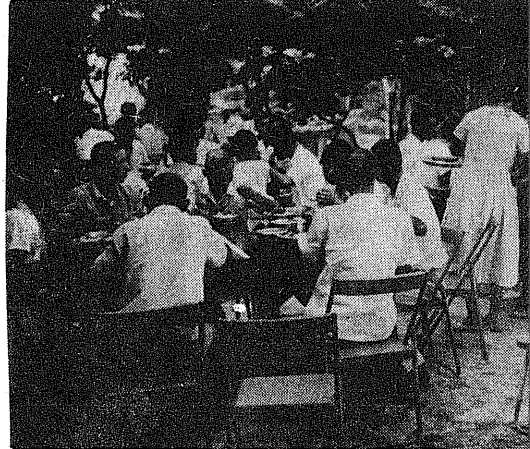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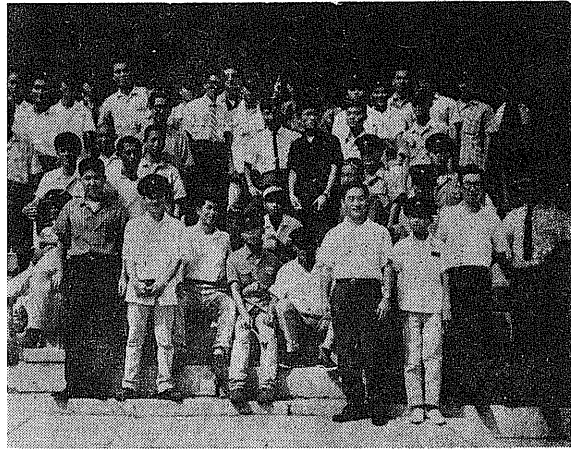
21세 미만 아톤신권자 대회를 이어 8월 22일에는 지방부 상향회 주최로 시화전을 선교부 강당 및 후원에서 전시하였다. 우리 한국에 회복된 복음이 전파된 이래의 모든 사진을 전시하고 우리 교회에서 발간된 모든 서적을 전시하였다.

오후 6:00시 부터는 신권회 대회가 시작됐는데 선교사토 부름받고 대구지부에서 수고하신 한인상장노의 신권소유자로서 한국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목으로 말씀했고 정대판 전 지방부장이 "신앙 안에서 멩치자"는 말을 감명깊게 들었다.

23일 오전 총회에서는 한국 지방부장에 이호남 형제, 지방부장단 제2보좌에 오계희 형제, 서기에 서원 형제, 지방부 평의원에 황인철, 박재암, 송태섭, 지영달, 김용태, 금바울 형제님들에 대한 회원의 지지가 있었으며 이어서 선교부장님의 "성도들의 생활태도"에 대해서 감명깊은 말씀을 하셨다.

이번 지방대회를 회고컨데 지금까지의 지방대회보다도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21세 미만 아톤신권자 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행사가 성공적이었으며 이번 지방대회를 통해서 회원들은 배운바 많은줄 믿는다. 우리는 일진월보의 상태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며 충실한 신앙생활로서 하나님의 참 복음을 온 책성들에게 전하고 다같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노력해야 될줄 믿는다.





덕수궁에서

21세 미만 아론신권 대회를 돌이켜 보며

사사광경

부족하였으나 21세 미만 아론신권 소유자의 연차적인 대
 활동의 하나로, 지난 8월에 처음 가졌던 21세 미만 아론신권
 대회에 관하여 지면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획을 주신
 "성도의 빛" 편집자에게 먼저 감사드리며, 주어진 이 지면을
 통해 21세 미만 아론신권 소유자들과 더욱 친근해질 수 있고,
 아울러 지난번 대회의 경과를 돌이켜 분석하여 보므로써 다시
 금 내년도 대회에 대비할 수 있는 굳은 마음을 고취해줄 수
 있는 기획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21세 미만 아론신권 소유자 뿐만이 아니
 라 다른 모든 형제와 자매님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격려와 위
 토와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의 속도를 더해드릴 수 있는 약
 세테다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계획의 태동

예로부터 일년의 계획은 봄에 씨앗을 뿌리는데 있고, 집

년의 계획은 산에 나무를 심는데 있으며, 백년의 계획은 사람을 올바르게 가르치는데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0년 이상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왕국의 건설계획이, 교회의 기둥인 신권소유자의 올바른 성정을 위하는데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높은 산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이 맑은 계곡의 풍치를 이루며 흐르느냐, 아니면 이끼가 끼인 웅덩이에 가두어져서 보이는이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느냐 하는 가름은 바로 산줄기의 정점인 분수령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이, 우리 인간의 생활이 보람있게 가꾸어 지느냐 아니면 불행한 형극의 길을 걸으면서 보이는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느냐 하는 관가름은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곧 인생의 분수령에서 내딛는 한 발짝이 작우한다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21세 미만 아톤신권소유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의 움직임이 얼마나 바르게 정돈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대신권을 수여받고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 회복된 복음의 높은 표준에 따라 의롭게 생활할 수 있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정신적인 양분의 에센스를 보급해 주려고 의도한 것이 지난 8월 대회의 계획취지였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닐것입니다.

실로 지난 8월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2,3개월 전에 구체적인 계획순서가 마련되어 있었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적금활동의 한가지 방법으로 폐품모으기 운동을 장기 계획으로 지난 봄부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번 21세 미만 아톤신권 대회만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아니고 많은 다른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

있읍니다마는, 어쨌던 다각적인 준비활동이 오래전부터 태동하고 있었던것만은 사실입니다.

2. 푸토그램의 내용

원래 "협동심의 양양과 복음의 표준에 따르는 생활"을 고취하기 위해서 "캠핑"을 구상했었으나 예산문제와 준비의 번잡성 때문에 21세 미만 아톤신권대회라는 이름으로 계획하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구상했던 계획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지만 대회 참가자들이 칩식을 함께 하며 똑같은 생활을 한다는 본래의 방침에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잠간 지난 대회때 가졌던 푸토그램을 여기에 소개하면서 그때의 대회 모습을 엿보기로 하겠습니다.

8월21일, 금요일, 아침 여덟시 반까지 참가자들의 등록을 마치고, 아홉시부터 40분간 대회 개막식을 가지므로써 이틀동안에 걸쳐 개최될 제 1회 21세 미만 아톤신권 대회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대회 개막식을 끝내자, 7개지부에서 모인 형제들의 간단한 자기 소개가 있었고, 10시부터 11시까지 첫번 공과를 가졌습니다. "신권의 권능과 그 권위 보존문제"를 주제로 이호남 형제(현 지방부장)께서 맡아주신 이 공과는 사뭇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과(2)가 대구지부에서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한인상 장노님의 담당으로 11시 15분부터 한시간 동안 계속되어 "신권을 가장 값있게 행사하는 길"을 주제로 많은 감명적인 말씀들을 들려 주셨습니다.

오후 1시30분 까지 점심식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순서에 따라서 즐거운 오후의 푸토그램에 임하였습니다. 8월의 더위가 온 몸을 땀으로 적시게 하여주던 시간이긴 하였지만 지방부 지도자들을 포함한 약 50명의 형제들은 선교본부의 마당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서울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고궁, 덕수궁으로 가서 망중한의 휴식을 갖고 국립 박물관을 견학하면서 "휴식하는 배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6시 30분, 다시금 흥겨운 활동적인 오락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시간에는 각 지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을 초청하여 함께 즐기면서 게임과 민속무용과 합동극람 등으로 정신의 피로를 풀었고, 어둠이 숲 속에 깃들었을 때는 다시 밖으로 나아가 모닥불을 피워놓은 주변에서 "성도들아 두려울것 없다"하는 찬송가를 경건하게 불러 초대교회의 개척자들이 서부로 이주하며 체험한 고난을 눈앞에 그려보는 모닥불 주위의 이채로운 활동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된 "마쉬메론"을 스티에 썰어서 구어 먹으며 한편 부끄러운 감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밤 9시 30분, 비교적 이른, 여름의 초저녁이었지만, 하루의 피로를 충분히 풀고 이튿날의 일과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굳나잇 인사를 서로 나누다음 일제히 취침했습니다.

8월 22일, 토요일, 이날은 오후부터 한국 지방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21세미만 아론신권 소유자들은 아침 5시 30분에 기상하여 굿모닝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공과(3)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방부 평의원이신 황인철 형제님의 담당으로 6시부터 한시간 동안 가진 이 공과에서는 "신권 승진을 위한 준비"를 주제로 공부하였고 이 공과가 끝난 후에 전 회원은 실내외 청소를 맡김히 하므로써 청운동의 송림속에 자리잡고 있는 선교본부의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였습니다.

아침 9시 45분에 다시 공과 (4)를 맞이하여 "지도자를 돕는 방법"에 대해 지방부 평의원이신 박재암 형제님의 감명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시부터 12시까지 공과 (5)를 맞이하여 정대관 형제님(당시 지방부장)의 담당으로 교회 조직과 나의 위치"를 주제로,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므로써, 이번 대회의 핵심을 이루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모든 공과를 끝마쳤습니다.

오후 1시 30분, 특별히 요리된 별식 비빔밥을 점심으로 들고 잠시 휴식을 가진후 이번대회를 총결산하는 엄숙한 모임인 신앙간증회를 2시부터 갖고 "우리 다시만날 때"를 폐회찬송으로 다같이 부르면서 양일간에 걸쳐 기거를 같이하며 생황해 온 제 1회 21세미만 아론신권 대회의 종막을 내렸습니다. 오후 3시 간단한 인쇄물 기념품을 나누어 가진 참가자들은 이틀동안에 얻은 알찬 영적인 수확을 저마다 가슴깊이 간수한채 내년에 다시만날 약속을 굳게하며 석별의 정을 악수로 나누었습니다.

3. 대회의 종합 진단

(가) 참가 인원

이번 대회는 많은 회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21세 미만 아론신권 소유자와 21세 미만 아론신권회 고문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비교적 예상보다 적은 수가 참석했습니다. 그 원인을 종합해 보면, 부산 대구, 형제들은 여비 부담이 컸다는 점, 서울 4개지부에서는 개인적으로, 혹은 지부별로(폐품 수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는 거의 이 계획이 충분히 광고되지 않았다는 점(참가

자들의 이야기), 많은 형제들이 개학과 시험으로 시간이 없어서 불가피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부별 참석수를 제시해 드립니다.

	고문	제사	교사	집사	회원	계
청운			2	5		7
삼정			1	4		5
성동		1	1	5	2	9
대구			2	4		6
부산		1	2	1		4
동구	1	1	1			3
서부		2		2		4
계	1	5	9	21		38

(나) 지출된 경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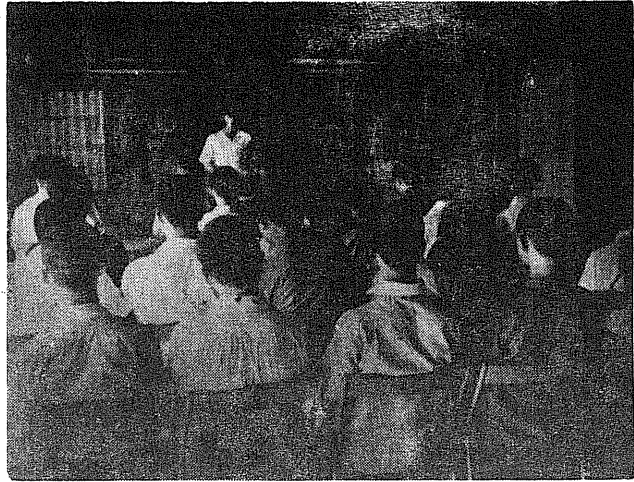
이번 대회에서 지출된 경비의 항목은 주로 부식비였고 덕수궁과 박물관 관람료및 교통비였습니다. 부산, 대구 형제들을 제외한, 서울 4개지부 회원들로부터 받은 회비와 선교본부에서 지출된 예산, 그리고 폐품수집 대금을 합하여 거의 4천 5백원의 현금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외에 쌀한가마가 선교부에서 지급되었고 커다란 양은술 2개와 마쉬메론 1상자를 선교부에서 사주셨습니다. 부식비는 1인당 매끼 15원을 계산한데 무리가 있었지만 철저한 양입계를 원칙의 강행은 자매님들의 기술적인 쇼핑과 조리토 식탁의 미관을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 프로그램의 진행

계획된 순서에 따라 시간의 어김이 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과 술선하는 기도의 생활은 훌륭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의도했던 것 처럼 참가자 자신들의 자율적인 사회화 진행으로 일관되지 못한 점을 미비된 점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서운한 것은 계획대로, 비원칙 관람시간을 갖지 못하고 덕수궁에서 돌아온 점입니다.

(라) 영적인 수확

총 다섯시간에 걸친 공과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감명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것은 어떤 지방대회나 지부의 신권회에서 들어 볼 수 없었던 정말 주옥같이 귀중한 공과였습니다. 교사님들의 한마디는 어느 하나 내버릴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알뜰히 간직해야 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서로 신앙을 간증



공과를 듣고 있는 형제들

하던 때의 껌손하고 경건하던 분위기. 이구동성으로 감명받은 바를 증거하며 감사를 드리던 모습들, 꺾으나 대회의 시간이 짧음을 못내 아쉬워하는 듯한 표정들, 그 어느 하나 영적으로 한발짝 발전했음을 증명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100퍼센트의 수확을 다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감이지만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지방대회의 신권회 대회에서 몇몇 형제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아론신권 대회에 참석했던 형제들이 저마다 각 지부에 돌아가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전보다 더욱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간증한 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선의로 해석하며 자위하고 말았습니다.

4. 기억에 남은 일들.

이번 대회가 얼마나 훌륭했나하는 것은 참가했던 형제들 각자의 기억에 얼마나 남는 것이 많았느냐 하는데 달려있을 것입니다.

한 여름의 밤이 다소곳이 내려앉은 청운동 송림속에 벌레의 울음소리도 잠잠한 밤, 귀전에 노크해오는 쭈쭈 흐트는 개울물 소리, 이따금 "씩—"하고 길손 처럼 들렸다가 곧 솔잎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 아마도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시위 때문에 어느 형제는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도 그처럼 열심히 일기장을 메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공과와 활동을 통해서 받은 감명을 시간마다 사업으로 적어 엽서를 띄웠던 자기의 일들을 흐뭇하게 여기고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틈을 기억해두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형제들은 분명히 이번 대회에 참석한 자기의 보람과 자랑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엽서에 스წ�하여 멀리있는 친구들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분주한 단체 생활의 여가를 활용하여 그렇듯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고 또 벗들에게 충실할 수 있었으니 틀림없이 자기의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충실하리라고 미루어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들 옆을 지나며 마음속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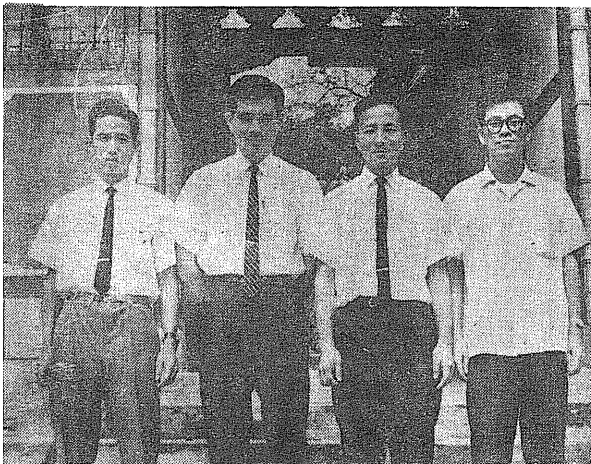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거둑함에 따라 이 한줌의 밀거름이 허실되지 않고 더욱 모이고 모여서 마침내 훌륭한 열매를 맺을 의로운 씨를 뿌릴 수 있기까지, 이 적은 한줌에 또 한줌을 또 한줌에 다시 한줌을.....,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 끝까지 오로지 밀거름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엔 굳은 결의와 인내와 희생이 각오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있을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꾸준히 봉사하므로써 비옥한 내일의 밀거름을 예비합시다.

끝으로, 저는 이번 대회가 훌륭하게 끝나고 참가했던 모든 형제들이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지출해 주신 선교부장님과 모든 준비에 협조해 주신 닐슨 장노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가 스케줄의 변동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된 시간에 맞춰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특히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메뉴를 치밀하게 계획해 주신 김도필 자매님께 더욱 감사드리며 취사기구를 빌려주신 삼청지부 상호부조회 회장님과, 뜨거운 폭양아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각 지부 상호부조회 자매님들의 숨은 노고에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형제들을 추천하여 주셔서 이번대회의 의의를 살려주신 각지부 지부장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회중 공극을 맡아주신 지방부 평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대회에 참석^한여 짧은 시간이나마 희노애락을 같이하여 참된 형제애를 보여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거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내 지부 자랑

— 서부지부 소개 —



서부서부지부에 대한 자랑을 하여 달라는 형제 자매님들의 부탁을 받고 자기가 다니는 지부를 자기가 스스로 자랑한다는 것이 좀 어딘지 이상한것 같이 느껴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

— 지부장단 일동 —

이 되새겨짐과 동시에 자랑이 오히려 스스로 내 지부를 낮추는 결과가 될가 두려워지는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부지부의 자랑이라기 보다 서부지부의 위치와 조직과 활동, 그리고 발전상황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여러 형제 자매님들의 의도하는 바에 어그러짐이 없이 답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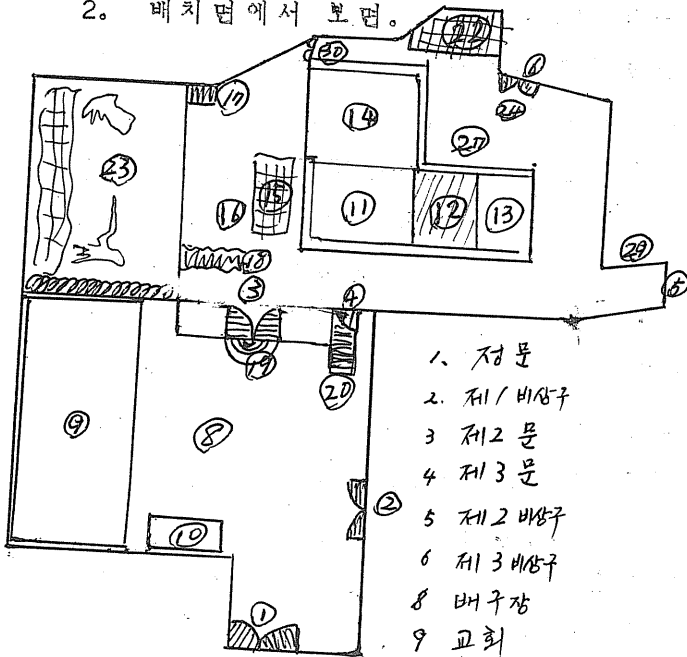
1. 서부지부의 위치면에서 보면.

서부지부의 위치하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서울의 4개지부 중에서 가장 교통이 좋고 찾기 쉬운 지부이며 그 장소는 경기대학의 옆길을 따라서 100미터 가량가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충정로 2가 58의 1)

독서 삼매의 결실로 말일의 영광을 꿈꾸는 배움의 건아

들이 분투하는 학교들을 양면에 두고 무한정 계속되는 생활의 휴식처인 가옥들을 옆으로 하고 있으며 광대하게 넓은 대지 속에서 수십종류의 나무와 아름다운 꽃으로 온통 주위가 향기로 가득한 수풀속에 아늑히 자리잡고 있는 서부지부는 그 장소와 주위의 조화로 한층 아늑한 분위기가 모든 세파의 고민들을 씻어주며 교회의 후면에서 일목요원하게 시내가 다보이는 위치는 무엇인가 좇기며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고 불안속에서 고민하는 인간상들의 답답한 마음속을 파헤쳐 주는 것 같은 상쾌한 기분을 주는 이 위치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가운데 정하여진 곳이라고 느끼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배치면에서 보면.



- 10. 창고
- 11 기초교리반
- 12. 요한반
- 13. 구도자반
- 14. 선교사방
- 15. 테라스
- 16. 우물
- 17. 제4층계
- 18. 제3층계
- 20. 제2층계
- 22. 옥상
- 23. 화단
- 24. 뒷마당
- 30. 제4문

- 1. 정문
- 2. 제1비상구
- 3 제2 문
- 4 제3문
- 5 제2비상구
- 6 제3비상구
- 8 배구장
- 9 교회

지도에서 보시는 박와 같이 넓은 데지에 우선 정문을 들어서면 100미터 전면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옛날 동화의 그림에서 황제가 거쳐하는 관문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거대한 제2의 서부지부분이 있으며 비탈진 길을 조금 올라가면 오른 쪽에 제2의 서부지부 비상구가 있고 왼쪽에 큰 은행나무가 있고 그 밑에 창고와 아울러 호도나무가 있고 그 옆에 넓게 자리잡은 우리의 전당인 교회가 있으며 여기를 지나 반원형의 층계를 올라 제2의 서부지부분을 들어서면 왼쪽에 선교사의 일을 돌아보아주는 형제님의 방이 있고 오른 쪽에 서부지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지부장실이 있고 또 그 옆에 조그만 서부지부 제3문이 아담하게 열려 있으며 그것을 지나면 수십종의 나무와 꽃과 숲으로 싸여 있는 집이 보이니 이것이 선교사님들이 거쳐하는 집인 동시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는 방들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성은 건물전체가 후면을 제외하고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면 왼쪽에 선교사의 방이 있고 그리고 정면에 기초교리반, 이 방을 중심으로 왼쪽에 요한반인 다락방, 오른 쪽은 쪽 복도 그리고 이 방을 지나면 야고보반인 마루방,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에 선교사들의 식사실 후면에 내실, 그리고 이 마루방을 지나면 구도자의 방이 있고 이 방에는 우리 교회의 서적과 모든 서부지부 서류가 보관되어 있으며 이 모든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는 서부지부를 제외하고는 다른 지부에서는 볼 수 없는 특성이기도 하겠지요.

이 건물을 지나면 오른쪽으로 숲과 꽃나무로 가득찬 오솔길 같은 소릿길이 있고 이 길을 따라가면 거기에는 제3의 비상구가 있으며 다시 올라와서 오른쪽을 보면 꽃밭이 있고

그 옆에 물탱크와 베란다가 있는데 여기에는 온통 시내가 다 보이는 아름다운 장소로 모든 피토의 땀을 식혀 주기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거처하는 내실을 중심으로 왼쪽에 넓은 대지의 확원이 있고 포도넝쿨이 엉켜진 테라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보는 건물을 들어서면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5월 나란히 160여개의 의자와 서부지부에서 제일 먼저 소유한 피아노가 눈에 보이며 장엄하게 울려나오는 피아노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경건성을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3. 조직과 활동면에서 보면.

지부장을 비롯하여서 모든 조직이 완전히 조직되어 있으며 특히 저희 지부에는 우정회가 있어서 서로의 서신연락을 하고 있으며 또한 때때로 미확부를 두어서 한달에 한번씩 교회의 도구 정리와 재검토를 하고 있으며 특히 저희 지부의 자랑이 되는 것은 탁구대와 건축은 저희들의 성금으로서 가지게 된 것이며 이와같은 자립정신이 나아가서 서부지부 회원들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것 같습니다.

서부지부의 발전처럼 급속도가하고 있는 곳도 거의 없으리라 믿읍니다. 제가 한국 지방부 주일학교 관계로 각 지부를 방문하여 보았지만 요즈음 우리 지부에 출석한 것보다 더 많이 출석하고 있는 지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일년전만 하여도 80-100여명 나오는 회원이 요즈음은 150-170여명으로 의자부족으로 주일날은 즐거운 비명을 울리는 날이 계속 있으며 이에 따라서 찬송가도 부족해서 그 수를 늘일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반가운 일은 그 전에는 거의 볼 수 없던 노년층의 형제

자매들이 요즈음 그 수가 부쩍 늘어서 정말로 엄숙한 분위기의 조성에 힘이 되오며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경험에서 얻은 지식으로 우리의 힘에 도움을 주기도 하는 요즈음 날로 그 기쁨 마음 금할 수 없음을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다고 느끼며 또한 요즈음 선교부 주일학교 통계를 보면 5월은 2위, 6월은 1위, 7월은 2위로서 차츰 그 성장율이 높아지며 2위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얼마나 큰 축복과 활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번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피아노를 가지게 되어서 기쁨을 금할 수 없는데 더욱 기쁜 일은 이번 새로히 침례를 받은 정응조 형제가 서부지부 합창단을 조직하여 합창연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어서 노년층의 형제 자매나 소년층의 형제자매가 다같이 참석하여서 음악을 하는 그 모습은 정말로 여기가 지상천국이구나 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런가하면 상호부조회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여러가지 옷과 가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있는 지부는 아마도 없으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 지부에 대해서 소개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기록부를 보니 기쁘게 저희지부에서 영아 안수가 여러번 있었으며 그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지부장님의 말씀에 마음 흐뭇하여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향회를 보편은 매주마다 새로운 계획으로서 서로의 친목을 도모하고 특히 장소를 이전하여 가면서 모이는 것은 새로운 감각을 느끼게 합니다.

7월에 서부지부에서는 여름밤의 향연이라는 문학의 밤을 가져서 모든 회원들의 문학적 소질을 마음껏 누렸으며 특히 8월 초에는 야외에서 모임을 가져서 외부에서의 모임에 기쁨

을 누렸읍니다.

8월말에는 서부지부 카니발을 가져서 낮에는 청소와 정리를 하고 밤에는 불을 피워놓고 과자를 구어 먹으면서 노래와 유포어로서 즐겨보는 날을 가졌는데 그 날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에 즐거움과 무아지경의 하루를 가졌구나 하는 아름다운 날들로 기억에 새롭게 만드는 날이 있었다는 이 사실 또한 상향회 역원과 모든 회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와같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은 특히 서부지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 김복경 지부장을 비롯해서 모든 역원이 서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서로의 문제를 토의하는 적극성에서부터 발돋움 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나 어느 단체나 어느 개인이나간에 그것이 잘 운영됨을 정의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는 분명히 발전에 발전을 가져 온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지부는 이것에 입각해서 분명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신앙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신념하에 모든 회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이 많은 회원과 아름다운 교회와 모든 물질적인 특별한 축복을 받고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4. 서부지부 역원의 지방부 활동.

김복경 지부장을 비롯해서 제일보좌 김석모, 제이보좌 김종균, 서기 조규영 형제를 선두로 주일학교 회장 황충열 형제 윤흥기(제1), 송장석(제2), 그리고 상향회에 이태문과 민병은 자매를 회장단으로해서 제1 김태득, 이재방, 제2 권태동, 이완순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상호부조회는 황근옥 자매를 회장으로 여러자매님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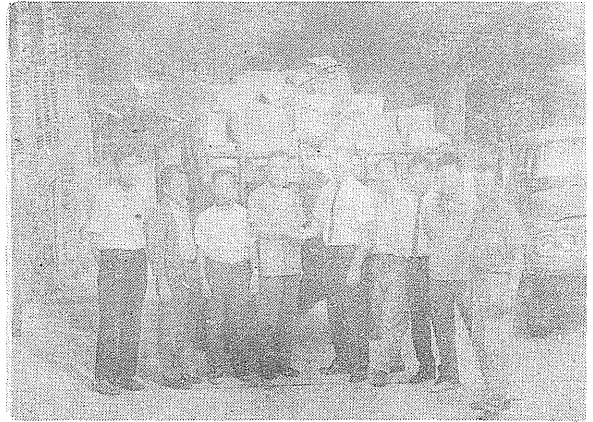
전번의 주일학교 회장이시던 이정근 형제는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뒤에 미루고 주일학교의 발전에 전력을 다하여서 제 1위의 좋은 성적을 올렸으며 전번의 상향회 역원인 안상인 형제를 회장으로 해서 백방강 자매, 그리고 그 보좌들의 노력으로 지난번 선교부 각국 의상 무용파티에서 인기를 집중한 일들을 노력의 결과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지면관계로 서부지부의 역원 소개는 그만하고 지방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부장님은 지방부에서 평의원의 한분이었고 제1보좌인 김석모 형제는 장노회 회장이었고 제2보좌인 김종균 형제는 주일학교 제1보좌(형제는 제2보좌)였었습니다. 황종열 형제는 선교부 상향회의 서기였고 지금 선교부 상향회 회장인 오계희 형제는 전번의 서부지부 지부장이었으며 아톤신권의 회장이신 황인철 형제역시 지부장을 역임하였고 지금 장노회 회장인 박재암 형제는 제1보좌로서 활약하셨고 요한반교사였던 안상인 형제는 선교부 주일학교 초창기 회장이었으며(형제는 제1보좌), 음악지도자이신 김경아 자매(형제 금해에게심), 유년부장이신 황근옥 자매님을 비롯해서 상호부조회 제1보좌이신 김도필 자매님 지금도 편치 못한 몸을 하나님 사업에 열중하시는 것을 보면 저희들의 뼈리가 모트는 사이에 수고러집니다.

서부지부에서 3년이나 계속 청년 상향회 회장이셨던 백방강 자매님은 상호부조회 편집위원이며 미균 형제들의 대회때마다 음악을 하여 주셔서 칭찬이 많은것 또한 서부지부 사랑이며 번역으로 수고하시는 최도중 자매님과 김경혜 자매를 비롯해서 여러 역원, 선교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80%가 서부지부를 거쳐가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볼 때 정말로 마음 흐뭇함

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회원과 경건성, 선교사님들의 특별한 협조, 그리고 하나님 사업에 서로의 개인문제를 떠나서 일하는 지부가 서부지부인줄로 느껴짐에 이의를 말할 분이 계시다면 좀 두렵습니다만 이 모든 것은 제가 느낀 바를 적었을 뿐입니다.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라며 지면이 허락하면 다음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만 끝일가 합니다.

—*—*—*—*—*—*—*—*



— 구호품 인도 광경 —

"수재민들에 의류 한 추력 기증"

지난 9월 초에 수해로 말미암아 수천의 이재민들이 가족들의 목숨과 가재를 유실당해 거리에서 방황한다는 신문보도의 보고를 들은 "칼" 선교부장님은 미국의 회원들이 한국의 회원들에게 기증하기 위해 모여보낸 100여상자 한추력분을 수재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경향신문사에 전했다. 의류 인도시에 "칼" 선교부장님은 "얼마되지 않는 의업품이 불행에 당한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 될 수 있으면 기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경향신문 9월 16일자 서간 참조 바람)

구투마를 끄는 게 아니고 구투마가 사람을 끄는 것이다) 비를 맞으며 본부로 타박이고 있었을 때에도 잊어버릴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 한 자리에 같이 할 수 없는 이유가 "한국적인 여러가지 조건"(구태여 말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짜증같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멀지 못한 거리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몇개 안되는 년중 행사를 따로 따로 진행해야만 될 것이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내로 지방부에 속한 전체 지부의 참석리에 체전을 한번만이라도 벌릴 기회가 오기를 바랄 뿐이다.

끼름직한 말: 매년 소프트 볼 시합에는 비가 따른다. 작년이 그랬고 올해가 또 무슨 번덕에서인지 괘던(가을) 하늘이 시합과 동시에 구물거리기 시작하더니 끼임이 제격에 어울릴 때쯤 되니 내려붓기 시작한 것이다.

일이 이쯤되고 보니, 정했던 7회전을 완전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 지방부 역원과 심판이 합의, 끼임 횟수를 줄이기로 했으나 선수 자신들의 반대로 이 결정은 뒤로 돌아왔다.

물론 작정했던 7회전을 다 못하도록 불운했던 지방부에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을 심중 검토하여 내린 명색화는 아무 것도 도와줄 수는 없었지만 (생각)결정을 일축해버린 전 회원들에게도 한 번 다시 생각함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결승전은 빗속의 선전 선투였다.

실황: 모임은 2시 정각에 한국 지방부 청남 상향회 제 2보좌 고원용형제의 사회로 시작. 박민용 체육 교사에 의해 2시 30분 막을 올렸다.

작년 우승 지부이며 제패의 신념으로 결의가 굳은 삼청지부와 대개의 체육 활동에는 행운을 잡지 못해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던 서부지부와 첫 대전은 위험한 게임이었다.

게임 전반을 잡은 삼청은 해이해진 탓으로 후반에는 몰리기 시작했다.

10:4에서 12:10으로 득점차가 줄어들자 이에 당황한 삼청은 다시 전열을 가담듬은 착실한 게임운영으로 맹렬한 추격전을 벌린 서부를 결국 14:12로 신승하는 결과를 빚었으며 연습기간과 장소의 핸디캡을 갖고 있는 서부는 삼청을 꺾고 우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주심: 윌리암스 장노)

다음은 성동과 청운의 대전이었는데 성동은 작년도 준우승을 차지한 동부 지부와 동대문 지부와 의 통합으로 우승 후보지부로 클로즈업된 지부였다.

한편 체력은 적으나 팀워크를 주 특기로 자유로히 구사하여 매 서합마다 강적으로 지목되는 청운도 필승을 목표로 굳게 등친 지부였다.

체력으로 열세에 놓인 청운은 빈틈없는 팀워크의 이점을 살려 성동을 착실히 견제했다. 1회의 3점 선취로 게임을 잡은 청운은 전반을 잘 이끌었으나 후반에 들어 시작된 성동의 타력을 막지 못해 게임 스코어 17:19로 패함과 동시에 서부와 함께 동을 3위 지부로 주저앉고 말았다.

(주심: 씨비지 장노)

준결승을 거친 삼청과 성동은 지난 회에도 자웅을 다투던 지부였다. 특히 성동은 전회 때에 분하게(?) 거의 다 쥐었던 우승배를 삼청으로 넘겨야 했던 전력에 비추어 설욕전으로 시합에 임했으며 삼청은 삼청대로 소프트. 불은 기를 써봐도 삼청이라야 한다는 생각에 못박기 위하여 배전의 용기와 패기로 대담했다.

삼청, 선공, 성동 수비로 시작된 께임은 처음부터 신중했다. 득점도 많이 나지 않았다.

6회말까지 치열했던 시합을 대체로 리드한 성동은 7:4, 3점의 득점차로 삼청을 눌러 우세한 가운데 삼청의 7회초 마지막 공격을 막기 위한 수비로 들어갔다. 그러나 불행의 성동은 삼청의 켄볼 작전에 걸려 득점음 허용하기 시작 13점을 가산해 주고 전세를 완전히 역전 당하고 말았다.

17:7로 거의 만회의 가망이 없는 득점차로 사기를 잃은 성동도 마지막 공격에서 8점을 빼앗는 기염을 토했으나 승패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 채 17:12로 패퇴되고 말았다. (주심: 콜 장노)

종합 성적은

삼청 — 14	성동 — 17	삼청 — 17	
서부 — 12	청운 — 9	성동 — 12	로

삼청 우승,

성동 준 우승

서부 청운과 동을 3위

청운 서부와 동을 3위.



우승철

아쉬운 말:

전에도 적은 대로 한국의 7개 지부가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은 가능하지는 못한 노릇이지만 마음이 편치 않다.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그래서 도중에 회수의 변동을 시도하지 않았었다라면.

지방부의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가 있었으면.....

예 정:

10월 10일에는 농구 대회가 있다.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날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니 지부에서는 회장단과 긴밀한 관계를 취하여 연습하여두면 좋다.

11월 첫째 토요일(7일)(끝난 후에는 민속 무용의 밤이 있음) 지방부 자매를 위한 베드민턴과 탁구대회가 선교본부 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 다른 광고 —

10월 15일에는 지방부 합동 상향회가 선교부에서 있다.

"의상과 무용의 밤"인바 각 지부 무용 책임자는 그 날 발표할 무용 한 가지를 준비하고, 회장단은 모든 회원이 의상에 관심을 갖도록 권고하기 바람.

각 지부 8월달 집행자 명단

대구 중앙 지부 —

백미방,	도영석,	최철,	최찬환
이종옥,	최봉길	백천자	조두현
정경희			

서부 지부 —

김재신	강영길	신동옥	민종숙
유수동			

삼청 지부 —

박희성	김영기	전확자	오현기
이연섭			

성동 지부 —

구봉희	이흥구	신금옥
-----	-----	-----

청운 지부 —

안의숙	윤미한	임정상	최병희	오돈
-----	-----	-----	-----	----

부산 동구 —

오병주	황정열	박홍기
-----	-----	-----

부산 지부 —

채윤일	이도환	전유조	한민근
-----	-----	-----	-----

편집 후기

오곡이 영글어 가늘 가을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트익어가는 계절입니다. 우리 "성도의 벗"도 이제 두번째로 여러분 앞에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의 내외 소식을 많이 기재했습니다.

"성도의 벗"을 중심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교회의 소식에 귀기울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다행일까. 편집자는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난 9월달은 대관장님의 생신달이여서 이에 관한 특집을 한셈입니다마는 오히려 어색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고견을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월을 그려주신 삼청지부 박자매님께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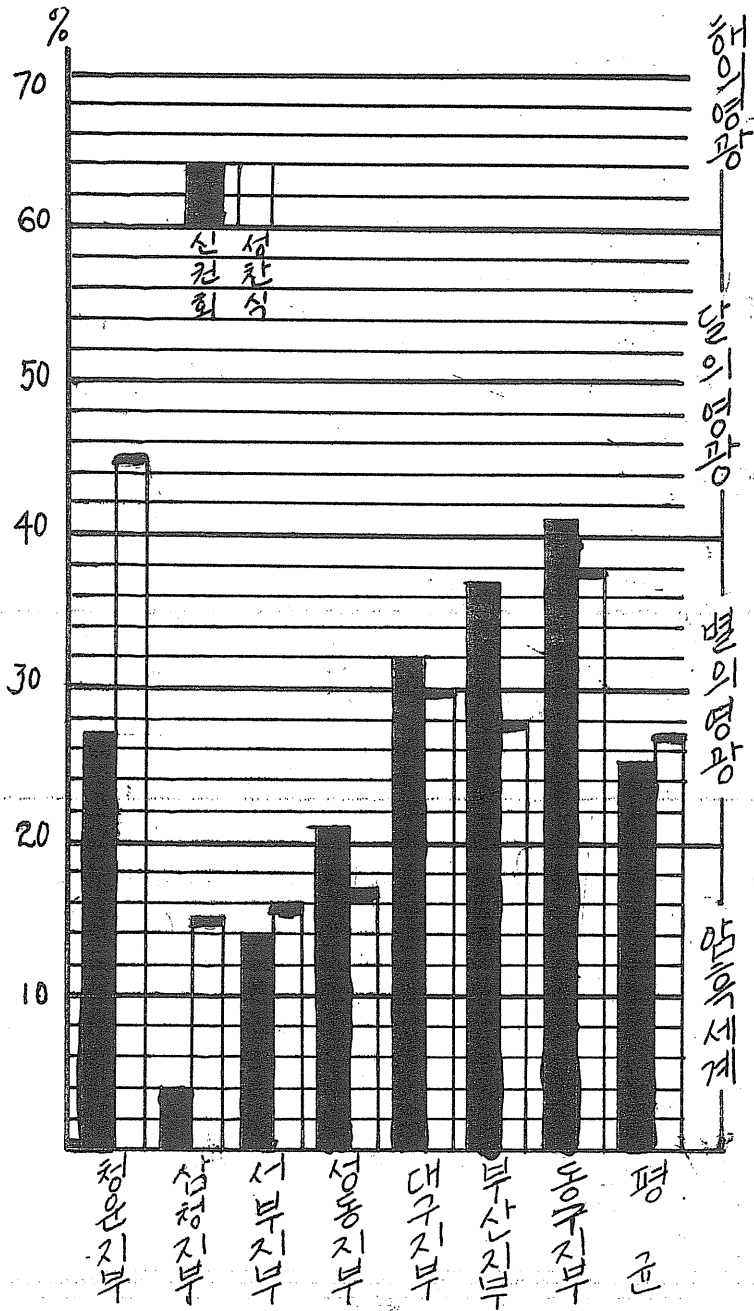
원고 모집

지금까지 한편의 원고도 들어도지 않았읍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옥고를 다음 요령으로 모집하오니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반드시 원고지에 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보낼곳 — 선교부 "성도의 벗" 편집부

제출기일 — 매월 15일내.

- 내 용 —
1. 내 지부 자랑
 2. 신앙 간증
 3. 성시, 시, 금언
 4. 어떻게 물문이 되었나?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部

(住 所 錄)

宣教本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清雲支部 73-3995

三清支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5번지
72-3596

城東支部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락동 산12의 24번지

西部支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58의 1
73-1208

大邱中央支部 대 구 시 삼 덕 동 2 가 24 번 지
2-6659

釜山支部 부 산 시 동 대 신 동 3 가 95 번 지
2-1371

東區支部 부 산 시 동 구 수 정 동 658 의 10

성도의 벗

發行人 개 일 이 · 카
編輯人 具 重 植

번역부

發行所 서울特別市鍾路區清雲洞 7
印刷所 末日聖徒 예수 그리스도 教會 韓國宣教本部

번역부